

Deloitte Insights

April 2026

재도약하는 제약·바이오· 의료기기 M&A 시장

2025년 동향과 2026년 전망

Varun Budhiraja 외 3인 | Deloitte Global

Deloitte.

Download on the
App Store

GET IT ON
Google Play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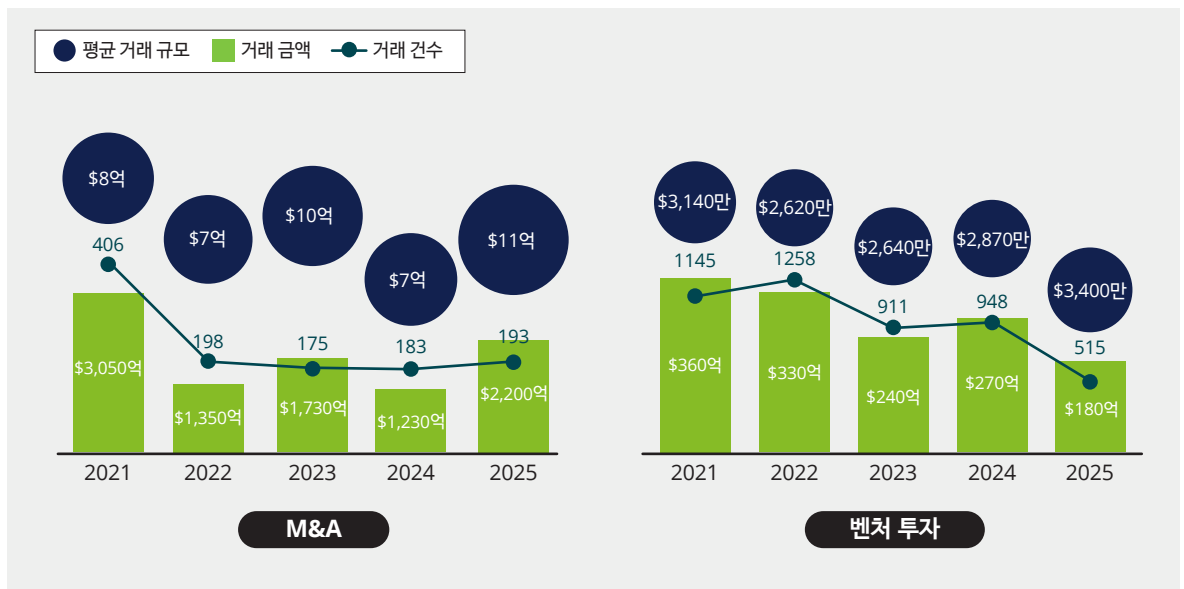


'딜로이트 인사이트' 앱에서
경영·산업 트렌드를 만나보세요!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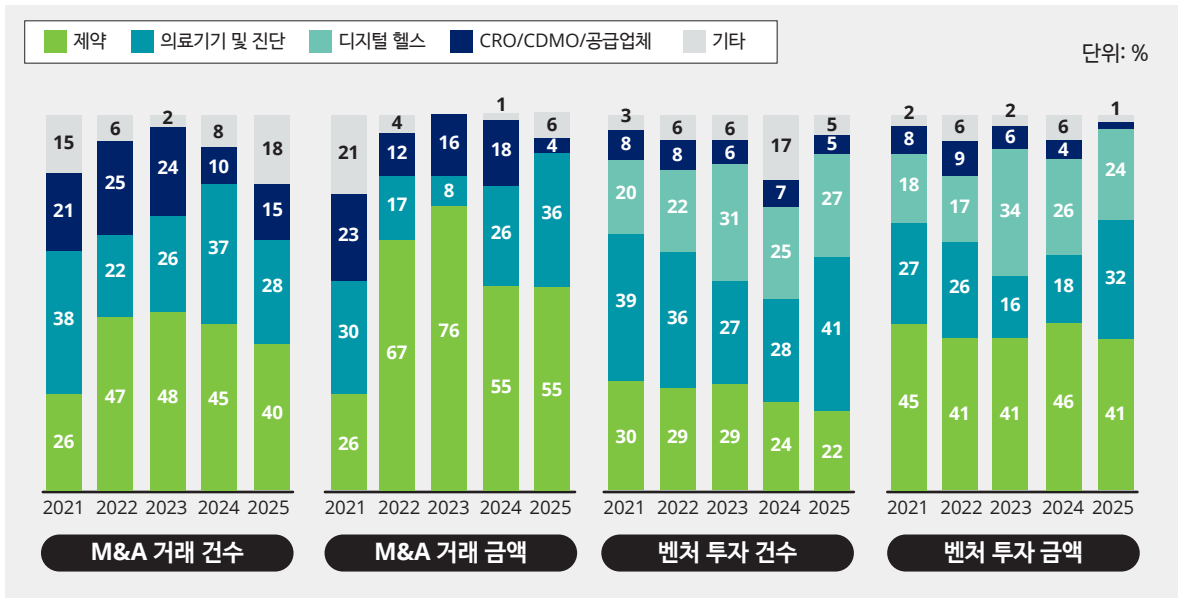
제약·바이오·의료기기 등을 포괄하는 생명과학 분야의 2025년 미국·유럽 인수합병(M&A) 시장은 상반기에서 하반기로 가면서 시장 흐름이 뚜렷하게 변화했다. 2025년 연초, 시장의 불확실성으로 인해 거래 활동이 위축된 상태였다. 그러나 연말로 접어들면서 M&A 활동이 빠르게 반등했다. 11월 말 기준, 총 193건의 거래가 성사되었으며 누적 거래금액은 2,200억 달러에 달했다. 이는 이미 2024년 총 거래금액을 상회하는 수치이다(그림 1).

그림 1. 생명과학 분야 M&A 및 벤처 투자 동향(2021~2025)



2025년 생명과학 산업에서 거래를 주도한 분야는 제약 부문이었다. 제약사들은 거래 규모가 크고 전략 상 중요한 거래들을 활발하게 추진했으며, 이는 2025년 총 거래 금액의 절반 이상을 차지했다(그림 2). 특히 평균 거래 규모는 전년 대비 4억5천만 달러 증가하며, 2024년 대비 70% 상승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러한 가운데 기업들이 임상 및 규제 리스크가 상당 부분 완화된 자산을 선호하는 흐름이 관찰됐다. 또한, 대사이상 관련 지방간염(MASH)과 같이 경쟁이 치열한 질환 영역에서도 적극적인 거래가 이루어지며 차세대 혁신 파이프라인 확보에 주력하는 경향이 나타났다.

그림 2. 생명과학 산업 세부 업종별 M&A 및 벤처 투자 동향(2021~2025)



※ 주: 반올림에 따라 합계가 100%와 일치하지 않을 수 있음.
 ※ 자료: CapIQ 및 Crunchbase 데이터 바탕으로 딜로이트 분석(2025년 11월 30일 기준).

2025년 초 거래 활동이 부진했던 배경에는 지속된 글로벌 거시경제 불안, 고착화된 인플레이션, 그리고 불확실한 규제 환경이 복합적으로 작용했다. 이러한 요인은 M&A와 벤처 투자 활동을 위축시키는 요인으로 작용하였다(그림 2). 이에 따라 거래 비용과 구조적 복잡성이 동시에 확대되면서 투자자들은 한층 더 선별적인 접근을 취하게 되었고, 위험 회피 성향이 강화되었다. 그러나 연중 후반으로 갈수록 생명과학 분야 M&A 시장은 점진적으로 회복세를 보였다. 매수자들은 파이프라인 보강과 포트폴리오 재편을 위해 외부 혁신 자산 확보에 적극 나서기 시작했다. 이러한 하반기 개선 흐름은 시장이 점차 안정적인 기반을 재정비하고 있음을 시사한다. 동시에, 투자자들은 관망 기조에서 벗어나 리스크가 상당 수준 해소된 성장 지향 자산 및 AI 기반 자산을 적극적으로 탐색하고 있다. 이러한 흐름은 2026년에 대한 신중한 낙관론을 뒷받침한다. 2025년 한 해 동안 다음과 같은 구조적 변화가 관찰되었다.

1. 단일 또는 소규모 임상 자산을 인수한 뒤 기존 포트폴리오에 편입하는 방향으로 변화
2. 의료기기 분야, 특히 진단 분야에서 거래가 크게 증가하면서, 2025년 거래 건수 및 금액 성장 주도. 매도자들이 비핵심 자산을 매각하면서 진단 분야에서 상당 규모의 거래 발생
3. CRO(임상시험수탁)/CDMO(위탁개발생산) 분야에서는 2025년 거래 활동이 둔화되었으며, 거래금액은 2024년 대비 70% 이상 감소

그림 3. 2025년 생명과학 산업 내 매수자 그룹별 M&A 거래 특성

		■ 총 거래금액 \$10억 이하	■ 총 거래금액 \$10억-50억	■ 총 거래금액 \$50억 이상	
		중소기업	대기업	사모펀드	비상장 전략적 인수자
제약	제약	중양 및 자가면역 질환을 중심으로 한 혁신 치료제, 유전자 치료제 및 약물 전달 시스템	중양, 신경계, 심혈관계, 유전질환 등 복합 질환 영역의 정밀의학 및 전문 치료제	희귀·감염성·특수 질환 대상 플랫폼, 글로벌 상업화 및 사업 확장 중심	신경계·심혈관계·호흡기·산부인과·통증 치료제 중심 포트폴리오 확대 및 글로벌 진출 전략
	의료기기 및 진단	환자 모니터링, 질병 진단, 임상 의사결정을 지원하는 SI 기반 솔루션	진단·수술·만성질환 관리를 위한 첨단 기기, 영상 및 로봇틱스 기술	영상, 최소침습 기술, 재택 의료 중심의 고도화된 진단·기기·디지털 헬스 자산	디지털 헬스, 종양학, 만성질환 분야의 혁신적인 의료기기 및 치료제를 인수해 전 세계 병원·클리닉에 서비스 제공
	CRO/CDMO/공급업체	연구·임상·치료 시장을 지원하는 원재료, 바이오서비스, 장비 제공	의약품 생산, 후보물질 발굴, 분석 분야에서 사업을 운영하며, 생명과학 및 헬스케어 분야에서 첨단기술 활용	바이오텍·제약·임상 연구·분석 분야에서 규모를 확대하며, 시험·컨설팅에 집중	바이오테크, 제약, 임상 연구 분야의 자산을 인수해 자회사로 편입하고 이를 통해 신약 개발, 약물 전달 기술, 혁신을 추진

※ 자료: CapIQ 및 Crunchbase 데이터 바탕으로 딜로이트 분석(2025년 11월 30일 기준).

2025년 주요 트렌드 분석

벤처 투자 규모와 거래 건수

2025년 생명과학 분야의 벤처 투자 활동은 전반적으로 위축됐다. 완료된 거래 건수는 2024년 대비 30% 이상 감소했으며, 총 투자 규모는 10월 누적 기준 약 180억 달러 수준에 머물렀다. 특히 제약 분야의 감소 폭이 가장 컸으며, 투자 규모는 전년 대비 약 60억 달러 줄어든 것으로 나타났다. 이러한 둔화는 변동성이 높은 시장 환경과 긴축적 통화 정책에 대응해 투자자들이 자본 운용에 신중한 접근을 취한 데 따른 것으로 분석된다. 투자 자금의 60% 이상은 시리즈 A~C 단계에 집중됐으며, 약 80%는 임상 1상 또는 2상 단계의 핵심 파이프라인을 보유한 기업에 유입됐다. 투자자들은 초기 단계의 고위험 자산이나 혁신적인 기술보다는, 임상 근거가 충분하고 상업화 경로가 비교적 명확한 기술에 관심을 보였다. 한편 의료기기 분야는 이러한 흐름 속에서도 약 50억 달러에 가까운 신규 자본을 유치하며 2025년 유일하게 벤처 투자가 증가한 분야로 나타났다.

제약 산업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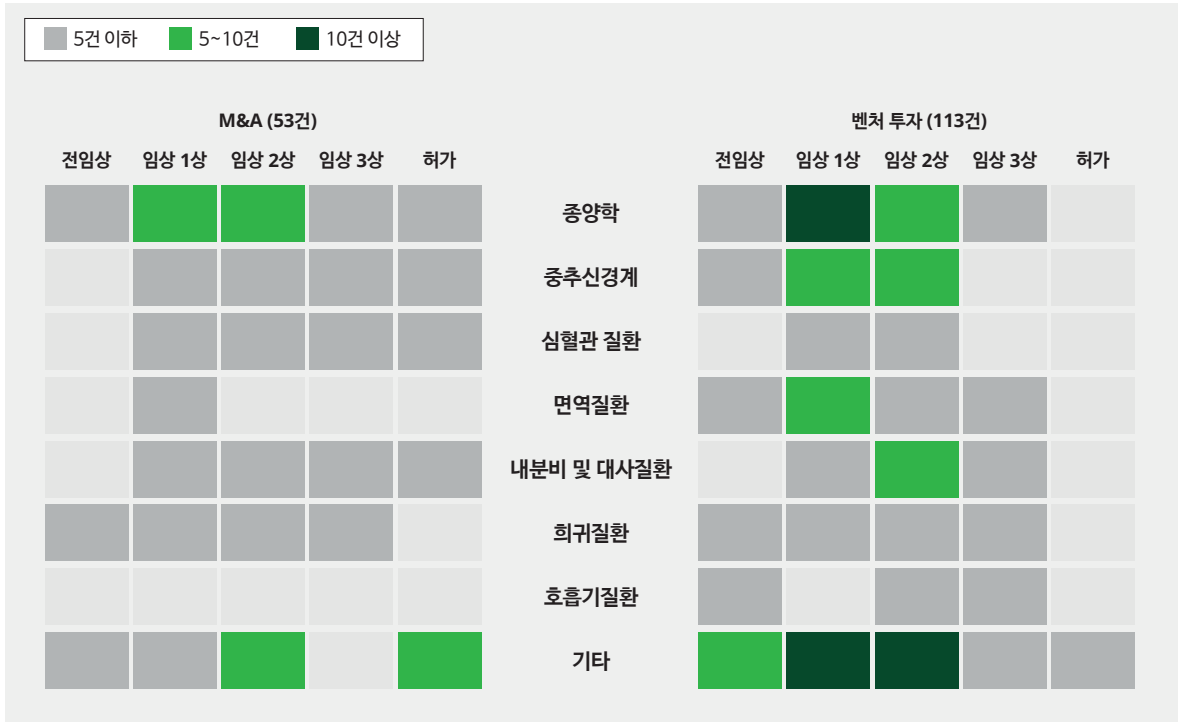
제약 분야의 M&A는 이미 시장에서 자리 잡은 검증된 치료제와 차세대 혁신 기술 간의 균형을 맞추는 방향으로 전개됐다. 종양학은 여전히 가장 큰 투자 영역으로, 전체 1,200억 달러 규모 거래 중 약 30%를 차지했다. 투자자들은 차세대 면역세포 치료제, 다중특이성 항체 플랫폼,¹ 방사성 리간드 기반 치료 기술² 등에 적극적으로 투자했다. 동시에 신경계 질환, 희귀질환, 심혈관 질환 분야에서도 거래가 확대되었으며, 이 세 영역에서 총 360억 달러 규모의 거래가 이뤄졌다. 특히 신경계 질환 분야에서는 약물 전달의 어려움을 극복하도록 설계된 혈뇌장벽 투과 바이오의약품³과 저분자 치료제가 주요 투자 대상이 됐다. 심혈관 분야에서는 나노입자, 펩타이드, 고분자 기반 전달체 등 새로운 약물 전달 시스템에 대한 관심이 높았다. 전반적으로 이러한 흐름은 제약 산업이 복합 질환을 겨냥한, 설계 기반의 모듈형 정밀 표적 치료제로 전략적 방향을 전환하고 있음을 보여준다. 기업들은 종양학 중심에서 벗어나 향후 포트폴리오를 확장하기 위해 다양한 치료 영역에 적용 가능한 유연한 플랫폼을 구축하고 있다.

¹ 다중특이성 항체(multispecific antibody) 플랫폼: 두 개 이상의 서로 다른 항원(표적)을 동시에 인식하는 항체를 설계, 개발, 생산할 수 있도록 하는 기술 체계

² 방사성 리간드 기반 치료 기술: 특정 질병 세포(주로 암세포)에 결합하는 리간드에 방사성 동위원소를 결합해 해당 세포에게만 방사선을 전달해 파괴하는 표적 치료 기술

³ 혈뇌장벽 투과 바이오의약품: 혈액-뇌 장벽(blood-brain barrier)을 통과해 뇌 조직에 도달할 수 있는 바이오의약품

그림 4. 개발 단계 및 치료 영역별 제약 산업 M&A 거래 현황(2025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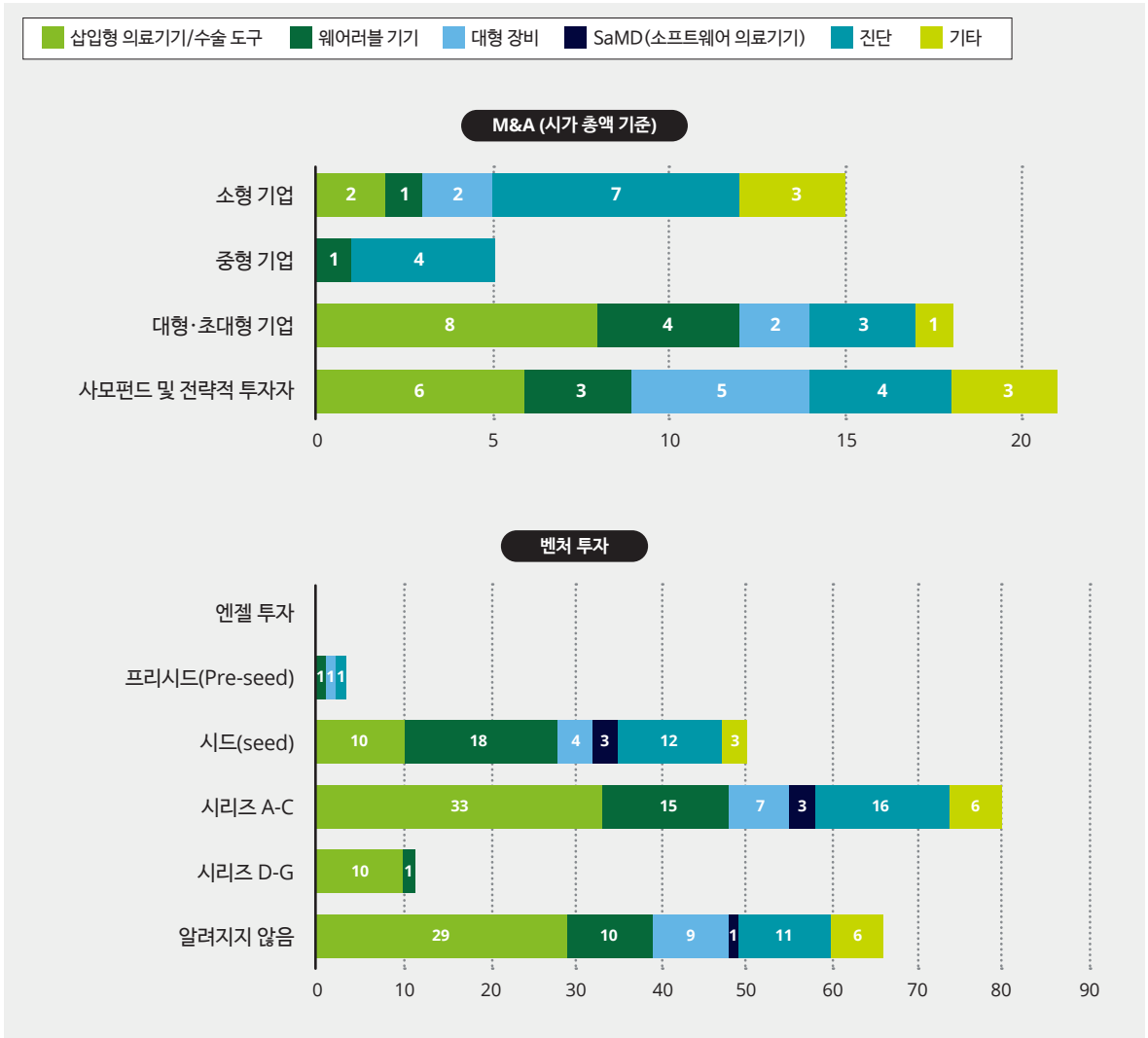
※ 자료: CapIQ 및 Crunchbase 데이터 바탕으로 딜로이트 분석(2025년 11월 30일 기준).

의료기기 및 진단 산업

의료기기와 진단 분야의 M&A는 총 780억 달러 규모의 거래를 기록하며, 기업들이 규모를 늘리고 내실을 다지는 데 집중하고 있음을 보여줬다. 진단 분야에서는 거래 규모와 건수 모두 2024년 대비 현저히 증가해, 11월 누적 기준 약 420억 달러에 달했다. 이러한 성장은 공간 다중오믹스⁴(spatial multi-omics), AI 기반 임상 바이오인포매틱스(bioinformatics), 대규모로 운영·확장할 수 있는 분자진단 기술의 발전에 힘입은 것으로 분석된다. 또한 산업 전반이 기존의 검사실에서 쓰이는 필수 장비 중심에서 시장성 있는 임상 서비스 중심으로 산업 구조가 전환되는 흐름을 보이고 있다. 의료기기 분야에서는 포트폴리오 최적화와 통합이 지속됐다. 대기업들은 성장성이 높은 영역에서 이미 검증된 기술을 확보해 치료 방법을 확대하는 전략을 이어갔다. 전반적으로 해당 분야의 M&A 거래 규모는 금융 및 거시경제 환경의 제약에도 불구하고 2024년 대비 소폭 증가해 11월 누적 기준 약 20% 성장했다. 인수 기업들은 특히 심혈관, 종양학, 신경혈관 질환 분야의 자산을 타깃으로 삼았으며, 체내삽입형 의료기기와 폐쇄루프 신경조절과 같은 정밀 치료 기술 확보에 관심을 보였다. 이러한 흐름은 기업들이 성장 전략에 집중하고 있음을 보여주며, 장기적인 사업 안정성을 뒷받침할 기술과 플랫폼 확보에 나서고 있음을 시사한다.

4 공간 다중오믹스(spatial multi-omics): 유전자, 단백질 등 다양한 생물학적 정보를 조직 내 공간적 위치 정보와 함께 동시에 분석하는 기술

그림 5. 의료기기 하위 분야별 M&A 거래 현황(2025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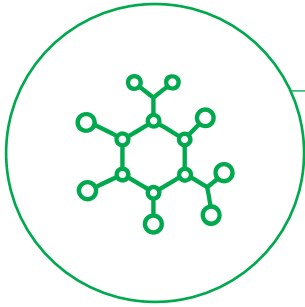
※ 자료: CapIQ 및 Crunchbase 데이터 바탕으로 딜로이트 분석(2025년 11월 30일 기준).

CRO, CDMO, 공급업체

임상시험수탁(CRO) 기업과 의약품 위탁개발생산(CDMO) 기업, 공급업체 사이에서 M&A 거래 규모는 11월 누적 기준 약 80억 달러로 감소했다. 이는 글로벌 거시경제 불확실성 속에서 2024년에 나타났던 산업 통합의 흐름이 둔화된 영향으로 풀이된다. 높아진 자본 비용, 무역 갈등, 운영상의 어려움 등이 거래 활동을 위축시키면서 M&A 등의 비유기적 성장 전략을 통한 확장이 기업의 우선순위에서 낮아진 것으로 보인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적극적인 인수 기업들은 첨단 의약품 생산 역량과 통합형 개발 플랫폼을 중심으로 투자를 이어가며 운영 효율성과 시장 출시 속도를 높이는 데 주력했다. 또한 기업들은 복잡한 개발 과정의 효과적인 관리와 앞으로의 성장을 위해 디지털 기반의 견고한 파트너 네트워크 구축에도 나서고 있다.

2026년 생명과학 산업 M&A 전망

2025년 트렌드를 심층적으로 분석하기에 앞서, 혁신이 그 어느 때보다 다양한 국가와 기술 분야에서 일어나고 있는 동 산업에 대해 2026년 전망을 제시하고자 한다.



종양학을 넘어 다른 치료 영역으로 확대되는 제약사 M&A

제약 산업에서 발생하는 M&A 가운데 약 3분의 1이 종양학 분야에서 이뤄지고 있다. 이 비율은 2021년 이후 큰 변화 없이 유지되고 있다. AI를 기반으로 하는 연구개발 혁신이 빠르게 확산되면서 종양학 분야의 자산에 대한 관심은 앞으로도 지속될 것으로 보인다.

2025년에는 심혈관질환, 대사질환, 신경계질환 등 성장성이 높은 치료 영역에서 거래가 눈에 띄게 증가했다. 최근 심혈관 분야와 대사성 간질환 영역에서 이뤄진 대형 인수 사례는, 제약사들의 투자가 종양학을 넘어 다양한 치료 영역으로 확대되고 있음을 보여준다.

영향 산업: 제약



미국 외 국가의 혁신 기업을 겨냥하는 글로벌 바이오파마

M&A의 타깃이 되는 기업들은 주로 미국에 본사를 두고 있지만, 최근 많은 제약사들이 혁신 기술을 미국이 아닌 일본, 중국, 유럽 등지에서 발굴하려는 움직임이 강화되고 있다.

각국의 공공 연구개발 지원 정책과 바이오 클러스터 조성 및 맞물리면서, 면역질환·대사질환·차세대 바이오의약품 분야에서 경쟁력 있는 자산이 등장하고 있다. 제약사들은 이러한 혁신 기업과의 인수 또는 공동개발을 통해 차별화된 기술을 확보하고, 시장 진입 속도를 높이려 할 것으로 보인다.

영향 산업: 제약, 의료기기



고도화된 선별적 인수가 M&A의 중심으로

생명과학 기업들이 파이프라인 확보와 자본 효율성 사이의 균형을 모색하면서, 2026년 M&A는 보다 정밀한 타깃 거래 중심으로 전개될 전망이다.

특히 '턱인'(tuck-in), 즉 인수한 회사를 기존 사업에 흡수·통합하는 형태의 인수와 '볼트온'(bolt-on), 즉 기존 사업에 새로운 제품·기술·시장 등을 추가해 사업 범위를 확장하는 인수가 주요 전략으로 자리 잡을 것으로 보인다. 이러한 방식은 통합이 상대적으로 빠르고 명확한 투자 수익을 기대할 수 있으며, 실행 리스크도 낮다는 장점이 있다. 이에 따라 기업 포트폴리오 전략을 신속하게 추진하기 위한 이러한 유형의 인수와 자산 거래가 한층 늘어날 것으로 예상된다.

또한 AI 기반 연구개발 역량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면서, 모든 산업 영역에서 이러한 전략적 턴인 및 볼트온 인수 전략이 더욱 활발해질 것으로 예상된다.

영향 산업: 전 산업



의료기기·제약 기업 전략적 사업 매각 확대 속 사모펀드 인수 투자 가속화

제약사들이 포트폴리오 단순화와 생산 효율성 제고에 집중하면서 매각 사업과 자산이 꾸준히 시장에 등장하고 있다. 매각 대상은 기존 제품 포트폴리오부터 제대로 활용하지 않는 생산시설까지 다양하다.

특히 사모펀드 투자자들의 관심을 끄는 자산으로는 성숙 단계의 브랜드 의약품, CDMO 및 원료의약품(API) 사업부, 더 이상 연구개발 전략과 맞지 않는 전문 치료제 포트폴리오 등이 꼽힌다. 이러한 흐름은 이미 의료기기 산업에서 활발히 나타나고 있으며, 향후 생명과학 산업 전반으로 확산될 것으로 전망된다.

영향 산업: 제약, 의료기기, CDMO



데이터 중심으로 재편되는 진단 분야

진단 기업들은 점차 데이터·기술·임상 활동을 중심으로 통합되는 방향으로 움직이고 있다. 기업들은 진단 정확도와 검사 워크플로의 효율을 개선하고 있으며, 검사실 인프라에 소프트웨어와 약물 평가 분석 기술을 도입하는 인수를 통해 사업 확장을 추진하고 있다.

또한 임상 검사실과 의료 데이터 플랫폼 간 협력이 확대되면서 산업 구조 역시 빠르게 변화하고 있다. AI 기반 진단 플랫폼은 질병 진단 접근성을 높이고, 진단 정확도를 개선하는 핵심 기술로 부상하고 있다.

영향 산업: 진단



핵심 요약

2025년 생명과학 산업의 M&A 시장은 종양학, 진단, 차세대 의약품 생산 기술 등 검증된 자산을 중심으로 한 전략적 거래가 주도했다. 전 산업 부문에 걸쳐 기업들은 임상적 가치, 기술 경쟁력, 규제 및 시장 불확실성에 대응할 수 있는 역량 등을 핵심 투자 기준으로 삼았다. 2026년에도 시장 환경은 긍정적인 흐름을 이어갈 것으로 예상되며, 상장기업과 비상장기업 모두 중요한 인수를 추진할 것으로 전망된다.

한국 딜로이트 그룹 전문가

생명과학 및 헬스케어 산업

한국 딜로이트 그룹은 미래 성장산업으로 주목 받고 있는 국내 생명과학 및 헬스케어 산업 성장의 동반자로서 제약사, 의료 기관, 공공기관 등 다양한기업의 전략적 과제와 혁신을 함께 해왔습니다.

약사 등 전문 자격 소지한 전문가를 국내 최다로 보유한 산업 전문팀은 다년간의 기업 자문 경험을 바탕으로 심도 있는 인사이트를 제공하고 있으며, 놀라운 속도로 발전하는 국내 제약바이오 및 헬스케어 산업에서 기업이 혁신적인 성장을 이어갈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고 있습니다.

편제성 파트너

생명과학 및 헬스케어 산업 전문팀 리더 | 경영자문 부문

☎ 02 6676 1979

✉ jpyeon@deloitte.com

안동휘 파트너

생명과학 및 헬스케어 산업 전문팀 | 회계감사 부문

☎ 02 6676 1617

✉ doahn@deloitte.com

박태호 파트너

생명과학 및 헬스케어 산업 전문팀 | 경영자문 부문

☎ 02 6676 2163

✉ taehpark@deloitte.com

이호진 파트너

생명과학 및 헬스케어 산업 전문팀 | 세무자문 부문

☎ 02 6099 4472

✉ hojilee@deloitte.com

안중식 수석위원

생명과학 및 헬스케어 산업 전문팀 | 컨설팅 부문

☎ 02 6676 2988

✉ jongsahn@deloitte.com



앱



카카오톡 채널



'딜로이트 인사이트' 앱과 카카오톡 채널에서
경영·산업 트렌드를 만나보세요!

Download on the
App StoreGET IT ON
Google Play

Deloitte.

Insights

성장전략부문 대표

손재호 Partner
jaehoson@deloitte.com

딜로이트 인사이트 편집장

박경은 Director
kyungepark@deloitte.com

Contact us

krinsightsend@deloitte.com

연구원

권은진 Senior Consultant
eukwan@deloitte.com

디자이너

박근령 Senior Consultant
keunrpark@deloitte.com

Deloitte refers to one or more of Deloitte Touche Tohmatsu Limited (“DTTL”), its global network of member firms, and their related entities (collectively, the “Deloitte organization”). DTTL (also referred to as “Deloitte Global”) and each of its member firms and related entities are legally separate and independent entities, which cannot obligate or bind each other in respect of third parties. DTTL and each DTTL member firm and related entity is liable only for its own acts and omissions, and not those of each other. DTTL does not provide services to clients. Please see www.deloitte.com/about to learn more.

Deloitte Asia Pacific Limited is a company limited by guarantee and a member firm of DTTL. Members of Deloitte Asia Pacific Limited and their related entities, each of which are separate and independent legal entities, provide services from more than 100 cities across the region, including Auckland, Bangkok, Beijing, Hanoi, Hong Kong, Jakarta, Kuala Lumpur, Manila, Melbourne, Osaka, Seoul, Shanghai, Singapore, Sydney, Taipei and Tokyo.

This communication contains general information only, and none of Deloitte Touche Tohmatsu Limited (“DTTL”), its global network of member firms or their related entities (collectively, the “Deloitte organization”) is, by means of this communication, rendering professional advice or services. Before making any decision or taking any action that may affect your finances or your business, you should consult a qualified professional adviser.

No representations, warranties or undertakings (express or implied) are given as to the accuracy or completeness of the information in this communication, and none of DTTL, its member firms, related entities, employees or agents shall be liable or responsible for any loss or damage whatsoever arising directly or indirectly in connection with any person relying on this communication. DTTL and each of its member firms, and their related entities, are legally separate and independent entities.

본 보고서는 저작권법에 따라 보호받는 저작물로서 저작권은 딜로이트 안진회계법인(“저작권자”)에 있습니다. 본 보고서의 내용은 비영리 목적으로만 이용이 가능하고, 내용의 전부 또는 일부에 대한 상업적 활용 기타 영리목적 이용시 저작권자의 사전 허락이 필요합니다. 또한 본 보고서의 이용시, 출처를 저작권자로 명시해야 하고 저작권자의 사전 허락없이 그 내용을 변경할 수 없습니다.